






꿈틀대고 있는 커피시장

청두지사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커피 문화

- 차문화가 발달해 상대적으로 커피문화의 상륙이 더뎠던 중국에도 서서히 커피전문점이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커피전문점 수는 현재 10만여 개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안도시들을 시작으로 중소형 도시로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커피전문점 수는, 상하이에 6,500개로 가장 많으며 베이징은 4,800개, 광저우는 3,100개로 집계됐다. 이는 고소득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상하이 등 해안도시들을 중심으로 커피 문화가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 중국에서 커피 한잔의 평균가격은 24위안이며, 라떼는 30위안이다. 중국의 커피 가격은 일본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인구와 소득증가세를 감안할 때, 중국의 커피전문점 수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아먼(廈門)과 푸저우(福州)와 같은 2선 도시들에 커피전문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 북미와 유럽의 1인당 연평균 커피소비량은 400잔, 한국과 일본의 커피소비량은 각각 380잔~360잔으로, 중국의 1인당 커피소비량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아직 10%에 불과하지만, 급속한 커피소비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그 성장잠재력은 무한한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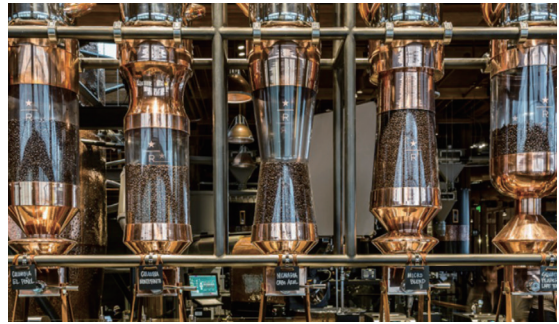
| 중국 내 커피전문점 브랜드 |

브랜드	특징
 <p>스타벅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은 20~30위안으로 비교적 고급커피에 속함 • 점포수 3,000개로 급성장중 •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매장의 디자인, 맛, 위생상태 등 통일 • 주로 변화가로 직장인 및 대학생 고객이 많음
 <p>맥카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도날드 : 대략 2000개 매장 보유 • 맥카페: 총 65개 매장 보유 • 2010년 커피시장 공략 시작-맥카페 개업(베이징) • 가격 : 15~25위안/1잔, 24시간 운영
 <p>상도커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은 20~35위안으로, 가격대가 높음 • 현지 레스토랑과 결합한 커피전문점이며, 고급 인테리어로 유명함 • 대다수는 가맹점으로 매점 관리 수준은 다소 떨어짐 • 2014년 중반기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에 잠시 올랐던 브랜드이기도 함

차별화된 특징을 내세운 커피전문점의 인기

- 커피 애호가들이 늘어나는 것에 발맞추어 커피에 대한 다양한 취향이 생겨나고 있으며, 남다른 커피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나 메뉴, 콘셉트를 갖춘 커피전문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상하이에 대형 베이킹 설비와 커피 제조공정을 볼 수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열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상하이에 문을 연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는 세계 최대규모로 매장 크기는 무려 3만 제곱피트(2,787㎡)에 달하며,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원두처럼 보인다.
- 또한 커피 외에도 차, 빵, 케이크,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매장은 개장 한달 만에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성업중이다.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상하이점 |



출처 : www.shanghaibang.com

- 국내 커피시장은 이미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커피문화가 뿌리내린 만큼 국내에서 시도되었던 메뉴와 매장형태를 중국시장에서도 시도해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食品商务网(<http://news.21food.cn>)
Euromonitor Internaonal 2018(RTD_Coffee_in_China)